

# 小兒鼻淵의 東西醫學的 考察

金成煥 · 李漢哲\*

## I. 緒 論

鼻淵이란 “濁涕下不止”<sup>1)</sup>라고 하여 一側或은 兩側 鼻腔으로 부터 濁涕인 粘液性,膿性,膿血性 分泌物이 繼續的으로 흐르는 것<sup>34)</sup>을 말하며 本病은 西洋醫學에서 急慢性 副鼻洞炎<sup>31)-34)</sup>과 附合된다. 鼻淵은 여러가지 異名을 가지고 있는데 明代의 《普濟方》<sup>10)</sup>에서는 腦瀉라고 하고 《本草綱目》<sup>41)</sup>에서는 腦崩이라 하였으며 《醫學入門》<sup>11)</sup>에서는 腦砂로 불리었다<sup>1)</sup>.

鼻淵을 가장 처음으로言及한 것은 《內經》<sup>1)</sup>으로서 《素問》〈氣厥論〉에 보면 “膽移熱於腦,即辛頰鼻淵”라 했으며 小兒鼻淵에 대해서는 隨代 《諸病源候論》<sup>2)</sup>에서 成人鼻淵과 別途로 小兒鼻淵에 對해言及했으며 宋代의 《太平聖惠方》은 小兒鼻淵을 單獨으로 하나의 疾病으로 論述하였다.<sup>19)</sup>

鼻淵의 原因으로는 《內經》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少陰之復 懊熱內灼 煩燥肝…甚則入肺 咳而鼻淵”이라 하였으며 《素問》〈氣厥論〉에서는 “膽移熱於腦則辛頰鼻淵”이라하고 《普濟方》<sup>10)</sup>에서는 “小兒鼻塞者 此由肺氣通於鼻 氣爲陽 諸陽之氣 上營頭面 其氣不善利 受風冷之氣”라고 하여 小兒鼻淵의 原因으로 보았으며 《幼幼集成》<sup>16)</sup>에서는 “鼻淵者 流涕腥臭 膽移熱於腦”라하여 內經의 說을 따랐으며 이를 總括하여 《中醫兒科學》<sup>19)</sup>에서는 外感風熱,外感風寒,膽移熱於腦,肺氣虛寒으로 分類하여 說明하였다.

治法으로는 大體的으로 散風宣肺,清熱解

毒,開鬱順氣,清肺降火等으로 보았다.

鼻淵은 生理學的으로나 解剖學的으로 成人보다는 小兒에게 多發하는 關係로 鼻淵의 確實한 理解와 小兒鼻淵의 特殊性을 理解하여 좀 더 나은 小兒鼻淵의 治療에 臨하고자 本 小考를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資料調查 및 研究方法

#### 1) 資料調查

韓醫學의 歷代文獻中에 《黃帝內經》에서 《中醫兒科學》에 이르기까지 鼻淵에 關한 言及이 있는 文獻34個를 選定하여 調查하였다.

西洋醫學은 慢性副鼻洞炎의 言及이 있는 最近 文獻 4個를 選定하여 調查하였다.

#### 2) 研究方法

(1) 成人과 小兒鼻淵의 區分없이 全般的인 鼻淵을 整理하였다.

(2) 小兒鼻淵이 成人 鼻淵과 거의 같으나 多少의 다른 점을 整理하였다.

(3) 小兒科에서 鼻淵의 重要性을 整理하였다.

### 2. 東醫學의 文獻考察

#### (1) 鼻淵의 病因病理

《內經》<sup>1)</sup>에서는 膽의 熱이 腦로 轉移되거나 少陰의 君火가 甚하여 熱이 肺에 入하여 나타난다고 보았고 《諸病源候論》<sup>2)</sup>에서는 氣虛時 風冷을 받아 風冷이 頭腦에 傳達되어 그 氣가 不和하여 停滯되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小兒科學教室

어 發病한다고 보고 있으며 《聖濟總錄》<sup>3)</sup>에서는 風冷이 肺經에 들어와 顛戶에까지 이르러 體液을 거두어 들이지 못함으로 因해, 《濟生方》<sup>4)</sup>에서는 肺虛한 狀態에서 風寒濕熱이 加해져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小兒衛生總微論方》<sup>5)</sup>에서는 風冷이 血氣를 逼迫해서 나타나며 《醫方類聚》<sup>6)</sup>에서는 脾의 濕이 낫지 않아서 發病하며 樓英의 《醫學綱目》<sup>7)</sup>에서는 濕熱痰積或은 肺寒으로 보며 《丹溪心法》<sup>8)</sup>에서는 肺經에 火邪가 있어 火熱이 鬱滯되거나 風寒이 感受한 것을 原因으로 보았다.

《黃帝內經》<sup>11)</sup>“膽移熱於腦”, “少陰之復燠熱內灼”

《諸病源候論》<sup>2)</sup>“若氣虛受風冷 風冷客於頭腦 卽其氣不和 令氣停滯”

《聖濟總錄》<sup>3)</sup>“風冷傷於肺經 冷中顛戶皆令兒體液不收”

《濟生方》<sup>4)</sup>“肺虛 風寒濕熱之氣加之”

《小兒衛生總微方論》<sup>5)</sup>“風冷博於血氣”

《醫方類聚》<sup>6)</sup>“鼻淵不已”

《醫學綱目》<sup>7)</sup>“濕熱痰積之疾也”

《丹溪心法》<sup>8)</sup>“肺經素有火邪 火鬱甚..”, “感風寒而致”

《東醫寶鑑》<sup>9)</sup>에서는 外寒이 內熱을 團束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普濟方》<sup>10)</sup>에서는 氣가 通하지 않고 風冷之氣를 받아 腦部로 들어가 鼻間에 停滯되어 氣가 멎어서 막혀서 原因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醫學入門》<sup>11)</sup>에서는 鼻塞이 오래 되어 熱이 腦에 鬱滯되어 清氣와 濁氣가 混亂되어 發生한다고 보았다. 《醫學心悟》<sup>12)</sup>에서는 腦가 寒氣를 받아 오래 머물고 흩어지지 않음으로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類證治裁》<sup>13)</sup>에서는 風寒이 腦로 들어가 오랫동안 鬱滯되어 化熱됨으로써 發生하고 《證治彙補》<sup>14)</sup>에서는 清氣出入의 길인 鼻가 막혀 氣壅하고 熱이 鬱滯되니 清濁이 混亂하여 發生하며 《景岳全書》<sup>15)</sup>에서는 太陽督脈의 火와 寒鬱, 濕熱等을 原因으

로 보고 있다.

《東醫寶鑑》<sup>9)</sup>“鼻淵者 外寒束內熱之證也”, “鼻流濁涕者 屬風熱也”

《普濟方》<sup>10)</sup>“小兒鼻塞者 此由肺氣通於鼻 氣爲陽 諸陽之氣 上榮頭面 其氣不利 受 風冷之氣 入於頭腦 停滯鼻間”

《醫學入門》<sup>11)</sup>“鼻塞久卽 氣壅不傳 熱鬱於腦 清濁混亂”

《醫學心悟》<sup>12)</sup>“腦中受寒 久而不散 以致濁涕常流 如泉水之涓涓耳.”

《類證治裁》<sup>13)</sup>“由風寒入腦鬱久化熱”

《證治彙補》<sup>14)</sup>“鼻內清氣出入之道 塞卽氣壅熱鬱 清濁混亂”

《景岳全書》<sup>15)</sup>“鼻淵者 總由太陽督脈之火 …新病者 多由於熱 久病未必盡爲熱證”

《幼幼集成》<sup>16)</sup>에서는 內經과 같이 膽熱이 腦로 轉移된다고 보았으며 《實用中醫內科學》<sup>17)</sup>에서는 첫째로 風熱이 肺를 侵犯하여 肺內 蘊熱이 薰蒸되어 清道를 막아 津液이 濁해지면서 鼻淵이 된다고 보았으며 둘째로 膽經의 鬱熱로 보았으며 셋째로 脾經의 濕熱로 보고, 넷째로 房室勞倦 등으로 봤으며 《中醫兒科證治》<sup>18)</sup>에서는 肺經蘊熱로 보고 《中醫兒科學》<sup>19)</sup>에서는 外感風寒 風熱, 膽經鬱熱, 平素 肺氣虛弱, 風寒等으로 보았다.

《幼幼集成》<sup>16)</sup>“鼻淵者 流涕腥臭 此膽移熱於腦 又名腦崩”

《實用中醫內科學》<sup>17)</sup>“風熱犯肺 蘊熱內蒸 熱壅清道 卽津液化濁 發爲鼻淵”

“肺經素有鬱熱”

“脾經濕熱酒食肥厚…上蒸清竅所致”, “正氣虧虛 多緣久病體虛 房室勞倦…”

《中醫兒科證治》<sup>18)</sup>“若長期流黃濁涕而氣味臭穢 是肺經蘊熱 又稱鼻淵”

《中醫兒科學》<sup>19)</sup>“外感風寒 或外感風熱”, “膽移熱于腦”, “肺氣虛寒”

《韓方眼耳鼻咽喉科學》<sup>35)</sup>“肺氣虛寒”

《中醫臨床大系》<sup>38)</sup> 外人: 外感風熱 風寒化熱

內因:胃腸積熱,肝膽鬱火,心血不足

(2)鼻淵의 症狀

《內經》<sup>1)</sup>에서는 濁涕가 끝없이 흐르며 《中臟經》<sup>20)</sup>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巢元方<sup>2)</sup>은 津涕를 거두어 들일 수 없다고 하며 方賢<sup>21)</sup>은 코안이 막혀 콧물이 그치지 않으며 呼吸이 不通하고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鼻中으로 누런 콧물이 흐르며 穢臭가 난다고 仔細히 說明하고 있으며 樓英<sup>7)</sup>,朱丹溪<sup>8)</sup>도 類似하게 說明하고 있다.

《黃帝內經》<sup>1)</sup> “鼻淵者 濁涕下不止”

《中臟經》<sup>20)</sup> “...爲濁膿 或不聞香臭”

《諸病源候論》<sup>2)</sup> “津涕不能自收”

《奇効良方》<sup>21)</sup> “鼻內壅塞 涕出不已 或氣息不通

不聞香臭

取黃水鼻中下 穢臭”

《醫學綱目》<sup>7)</sup> “右鼻管流濁涕 有穢氣 吐濁涕”

《丹溪心法》<sup>8)</sup> “鼻塞不聞香臭 ...鼻流濁涕下不止”

《醫學正傳》<sup>22)</sup>에서는 코가 막혀 통하지 않아 누런 콧물 또는 맑은 콧물이 흐르며 鼻中에 때때로 黃水가 흐르며 甚한 者는 腦까지 아프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醫學入門》<sup>11)</sup>에서는 香臭를 맡을 수 없고 濁涕가 흐르고 기침하면서 膿血을 吐하기도 하며 코가 막힌다고 했고 《萬病回春》<sup>23)</sup>에서도 역시 鼻中에 濁涕가 그치지 않으며 鼻中에서 黃水가 나오며 腥臭가 난다고 했으며 張景岳<sup>15)</sup>은 頭腦가 隱隱히 아프며 어지럽고 편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顧世澄의 《瘍醫大全》<sup>24)</sup>에서도 누런 콧물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濕한 狀態가 되니 어지럽다고 하였다.

《醫學正傳》<sup>22)</sup> “...成鼻塞不通之候 或爲濁涕 或流清汁 久而不已 名曰鼻淵 鼻中時時流 臭黃水 甚者 腦亦時痛”

《醫學入門》<sup>11)</sup> “...香臭不知...鼻流濁涕, 咳吐膿血, 鼻塞”

《萬病回春》<sup>23)</sup> “鼻不聞香臭 ...鼻流濁涕 而不止 鼻中流出 腥臭之惡者...”

《景岳全書》<sup>15)</sup> “頭腦隱痛 眩暈不寧”

《瘍醫大全》<sup>24)</sup> “鼻流濁涕 或流黃水 點點 商商 長濕無乾 久即 頭眩 虛暈不已”

《增補百病辨證錄》<sup>25)</sup> “涕臭者,流清涕而 不腥臭”

《醫宗金鑑》<sup>26)</sup> “鼻中淋瀝 腥穢血水 頭眩 虛暈而痛”

《中醫兒科學》<sup>19)</sup> 風寒症-全身惡寒發熱, 無汗頭痛, 鼻塞聲重, 流涕色白清稀, 風熱症-發熱重,惡寒輕,有汗口渴,頭痛頭脹,咳嗽,痰多 塞不利, 流涕色黃而稠或點白量多

膽熱症- 鼻涕黃濁粘稠或黃綠如液, 有時伴有血性,有臭味,臭覺差, 頭痛,煩躁易怒 肺氣虛寒-病程較長,鼻涕色白量多,或稀或點,無臭味,鼻塞或輕或重

《五官科學》<sup>35)</sup> 耳鳴,耳聾,記憶力低下

(3)鼻淵의 治法

孫思邈<sup>27)</sup>은 鼻淵의 治法으로 辛溫之劑로 막힌 것을 뚫어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朱丹溪<sup>8)</sup>는 肺火를 맑히는 爲主로 해야 하며 李梴<sup>11)</sup>은 養血과 補腎을 主로 하였으며 《景岳全書》<sup>15)</sup>에서는 補陽과 滋陰을 主로 하였으며 顧世澄은 《瘍醫大全》<sup>24)</sup>에서 滋腎清肺를 爲君으로 하고 閉鬱順氣를 爲臣으로 하라고 하였으며 黃度淵<sup>29)</sup>은 처음에는 消風散火,오래될 시는 養血補腎을 爲主로 治法을 말하였다.

《千金要方》<sup>27)</sup> “辛溫而導其滯”

《丹溪心法》<sup>8)</sup> “清肺降火爲主 消痰”, “佐以通氣之劑”

《醫學入門》<sup>11)</sup> “養血即血生而火自降”, “補腎即水升而金自清”

《景岳全書》<sup>15)</sup> “補陽, 清陰火而兼而滋陰”

《增補百病辨證錄》<sup>25)</sup> “清腦中之火 益腦

中之氣

《臨証指南醫案》<sup>28)</sup> 清熱散鬱 升陽散火  
驅風保肺 外感宜辛散 內熱宜清涼

《瘍醫大全》<sup>24)</sup> 滋腎清肺爲君 開鬱順氣  
爲臣 補陰養血爲佐 俾火息金清降

《醫宗損益》<sup>29)</sup> 初卽消風散火 久則養血  
補腎

《中醫兒科學》<sup>19)</sup> 宣通肺竅法爲主 - 風寒  
者: 辛溫宣肺 - 風熱者: 疏風清熱

- 膽移熱于腦者: 清瀉肝膽

- 肺氣虛寒: 溫肺散寒

- 脾虛清陽不升者: 補中益氣

### 3. 西醫學的 考察

#### (1) 副鼻洞疾患의 發生<sup>30)</sup>

부비동에는 前頭洞, 前後篩骨洞, 上顎洞, 蝶  
形骨洞이 있는데 前頭洞, 前篩骨洞, 上顎洞  
을 全群으로 後篩骨洞, 蝶形骨洞을 後群으로  
分類하며 副鼻洞의 粘膜은 鼻腔과 같  
이 모두 粘膜으로 덮여 있으나 粘膜下 組  
織은 얇아서 洞壁의 骨膜과 融合되어 있다.

副鼻洞炎은 흔히 急性鼻炎과 함께 侵犯  
되며 或은 慢性으로 移行되거나 獨立된  
模樣으로 일어난다.

副鼻洞은 어떤 上氣道 感染 때에도 侵犯  
될 수 있으며 가끔은 上氣道 感染이 사라진  
後에도 2次的인 細菌感染으로 因해  
副鼻洞炎이 持續되는 境遇가 많다.

副鼻洞中에서 가장 侵犯이 잘되는 곳이  
上顎洞이며 다음은 篩骨洞, 前頭洞, 蝶形骨  
洞의 順序이며 大概是 合病되어 나타나며  
單獨疾患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一般的으로 單一性 副鼻洞炎, 合病性 副  
鼻洞炎, 범부비동염으로 區分되나 嚴格한  
區分이 困難하므로 臨床的으로는 범부비  
동염이라고 稱한다.

#### (2) 급성부비동염<sup>31)32)33)</sup>

(가)원인

(1) 급성비염

감기에 속발하는 급성비염으로 바이러  
스나 세균에 의한 비점막의 급성감염은  
부비동점막으로 염증이 과급되어 동점막  
의 부종을 일으켜 자연공의 협착및 폐쇄  
로 소아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원인  
이다.

(나)인두감염

어린이에서의 아데노이드 비대와 편도  
염, 인두염은 감염의 원인이 된다.

(c)치아감염

상악대구치나 소구치의 충치발생 또는  
발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d)해부학적 폐쇄

비중격과 비갑개의 기형, 사골포, 구상  
돌기의 이상비대

(e)감염에 의한 폐쇄

(b)알러지에 의한 폐쇄

(s)비강, 부비동의 종양

(o)수영

(x)외상

(z)기타

(내)소인

(1)생활환경과 영양상태

(2)유전적 소인

(d)원인군

(1)바이러스

Rhinovirus, Para-influenza, Echo28, coxsa-  
ckieA21, Respiratory syncytial virus

(2)세균

Pneumococcus, Streptococcus, staphylococ-  
cus, Hemophilus influenza

(c)진균

Mucormycosis, Candidiasis, Aspergillosis

(e)증상

(1)일반증상

권태감, 두통, 미열

(2)국소증상

비색, 鼻漏, 부비동부위의 동통과 압통

(마)치료

항생제 투여와 국소치료

(3)만성 부비동염<sup>31)32)33)</sup>

(가)원인

(1)급성부비동염의 치료실패

(2)급성염증의 반복이환

(나)소인

비중격만곡증, 비갑개비후, 비강과 비인강종양, 인두편도비대, 알레르기

(다)증상

(1)이비인후적 증상-비색, 비루(수성, 장액성, 점액성, 농성), 후비루(건조, 작열감), 비출혈, 취각이상, 부비동 동통, 부비동과민 비성 인두건조감, 인통, 지속적 이루, 유스타키오관의 폐색증후

(2)두목 증상-두통, 아침에 심함, 루관폐색, 결막염, 안검부종

(3)호흡기 증상-기침, 객담, 재채기, 후부후두농, 부비동기관지염

(4)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소화장애, 식욕부진, 가벼운 위염

(5)기타동반 증상-미열, 간헐적 발열, 우울불안, 집중력 저하

(라)치료

수술등의 적극적 방법

### III. 考察 및 總括

《黃帝內經》<sup>1)</sup>에서는 “膽移熱於腦則辛頰鼻淵” “少陰之復甚即入肺 咳而鼻淵이라고 하여 鼻淵은 膽의 熱이 腦로 轉移하거나 少陰君火의 熱氣가 入肺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嚴<sup>4)</sup>은 肺虛한데 風寒濕熱의 邪氣가 侵入하여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朱<sup>8)</sup>는 肺經에 平素 火邪가 있는데 鬱滯가 甚해져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李<sup>14)</sup>도 역시 熱鬱滯로 因한 것으로 보고 許<sup>9)</sup>는 外寒束內熱之證이라 하여 風熱을 主要原因으로 보고 있으

며 樓<sup>7)</sup>는 濕熱痰積이 肺中寒으로 因해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李<sup>11)</sup>는 肺伏火邪, 熱鬱於腦, 肺風, 風熱內鬱, 肝熱生風, 心血虧, 即腎水少 등으로 因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張<sup>15)</sup>은 太陽督脈之火, 火由寒鬱, 濕熱 등을 原因으로 보았으며 顧<sup>24)</sup>는 腎陰虛而不能納氣歸元 故火無所畏 相迫肺金으로 因해 發生한다고 하였고 程<sup>12)</sup>은 腦가 受寒하여 오랫동안 滯어지지 않아서 起因한다고 보았으며 朴<sup>13)</sup>도 역시 腦가 風寒으로 말미암아 鬱滯되어轉熱이되어 鼻淵이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實用中醫內科學》<sup>17)</sup>에서는 첫째로 風熱이 肺를 侵犯하여 안으로 蘊熱이 쌓여 清道를 막아서 發生하며 둘째로 肺經에 平素 鬱熱이 있음으로 發生하고 셋째로 脾經의 濕熱이 많은 사람이 膏粱厚味를 常服하므로서 發하고 마지막으로 正氣가 虧虛하고 오랜동안 體力이 弱하여 發生한다고 보았다.

《五官科學》<sup>36)</sup>에서는 肺氣虛寒으로 發한다고 보았으며 《中醫臨床手冊》<sup>37)</sup>에서는 肺腎虧虛로 보았으며 《中醫臨床大系》<sup>38)</sup>에서는 內因으로 胃腸積熱, 肝膽鬱火, 心血不足으로 發生한다고 하였다.

小兒文獻에서 原因을 살펴보면 《小兒衛生總微論方》<sup>5)</sup>에서는 風冷이, 朱<sup>10)</sup>는 肺氣不利時 風冷을 받아서 發生하며 陳<sup>16)</sup>은 內經說인 膽熱을 原因으로 보고 《中醫兒科學》<sup>19)</sup>, 《中醫兒科證治》<sup>18)</sup> 등에서 風寒, 風熱, 膽熱, 脾經濕熱 등을 原因으로 보았다.

以上에서 列舉한 바와 같이 鼻淵은 主로 肺熱, 肺火, 風熱, 風寒, 肺虛시 受風寒邪氣, 肺冷, 腦熱, 腦冷, 濕熱痰積, 膽移熱于腦, 脾胃經濕熱, 腎陰不足, 肝膽火熱 등으로 起因되며<sup>34)</sup> 특히 小兒科에서는 그 中에서도 風寒, 風熱 등의 外感과 膽熱, 脾濕熱 등의 內傷이 主要原因으로 言及했다.

鼻淵의 症狀에 對하여 黃帝內經<sup>1)</sup>에서는 辛頰하고 濁涕不止하며 咳嗽을 發한다고 하였으며 華佗<sup>20)</sup>는 內經의 說을 引用하였

고濁膿이出하거나不聞香臭한다고 보았다. 蘇<sup>2)</sup>는津涕不能自收라고 하였고 陳<sup>39)</sup>에서는鼻疼하며濁膿과黧血이發한다고 하였으며 方<sup>21)</sup>은鼻內가막혀氣息이不通하고不聞香臭하며穢臭가나며黃水가鼻中에서分泌된다고 하였다.

嚴<sup>4)</sup>은內經의說을引用하였고《小兒衛生總微論方》<sup>5)</sup>에서는鼻瘻肉으로鼻塞이發生하고鼻涕가生한다고 하였으며 朱<sup>8)</sup>는內經의說을引用하여鼻塞하고濁膿이出하며咽中流涎하다고 하였다. 이는鼻不利而不聞香臭라고 하였고 樓<sup>7)</sup>는鼻管에서濁涕가흐르며穢臭가있고 朱<sup>8)</sup>는鼻塞이寒을 만나면 더甚해진다고 하였다.

虞<sup>22)</sup>는鼻塞不通하고濁涕清汁이나臭黃水가그치지않고흐르며甚하면腦痛이때로發한다고 하였고 이는香臭不知鼻塞鼻流濁涕咳吐膿血이生한다고 하였으며 孫<sup>27)</sup>은清涕不止하고太陽部가痛하며 재채기가起한다고 하였다.

龔<sup>23)</sup>은鼻中流出臭黃水하고腥臭가甚하며鼻가嗅覺機能을喪失한다고 하였고 이는鼻流濁涕膿血하며腥臭와穢臭가發한다고 하였다. 王<sup>40)</sup>은內經의說을引用하였고黃色이나白色또한血이섞인涕가腦水같다고 하였으며 張<sup>15)</sup>은頭腦가隱痛하고眩暈不寧하다고 하였고 顧<sup>24)</sup>는鼻流黃水가點點適適하여 오래되면頭眩하고虛暈이그치지않는다고 하였다.

陳<sup>25)</sup>은實熱로因한境遇는涕臭하나虛寒으로因한境遇는清涕가흐르며不腥臭하다고 하였다.

《中醫兒科學》<sup>19)</sup>에서는風寒證이原因인境遇에는全身惡寒發熱, 無汗頭痛, 鼻塞聲重, 流涕色白清稀하며風熱症의境遇에는發熱重, 惡寒輕하며有汗口渴하고頭痛頭脹하며咳嗽痰多하며鼻塞不利하고流涕色黃而稠하며膽熱症에는鼻涕黃濁粘稠하며有臭味하며煩燥易怒한다. 肺氣虛寒證에는或稀或點하며無臭味하고鼻塞或輕或重, 耳

鳴耳聾記憶力減退 등이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鼻淵의症狀은濁涕下不止, 鼻塞, 不聞香臭, 鼻流臭黃水, 穢臭, 腦痛, 辛頰, 濁膿, 腥臭, 鼻流清涕, 鼻不利, 眩暈耳鳴, 記憶力減退, 痰涎涕唾, 咽中流涎而涕, 喉間痰多, 發熱, 喜熱惡寒, 噴嚏 등으로 나타났다.<sup>19)34)</sup>

治法으로는 孫<sup>27)</sup>은辛溫以導氣滯라고 하였고 朱<sup>8)</sup>는清肺降火爲主 佐以通氣之劑消痰下라고 하였으며 李<sup>11)</sup>는養血卽血生而火自降하고 補腎卽水升而金自清이라고 하였다. 張<sup>15)</sup>은補陽과 清陰火而兼以滋陰이라고 하였고 陣<sup>25)</sup>은清腦中之火 益腦中之氣라고 하였으며 顧<sup>24)</sup>는滋腎清肺爲君 開鬱順氣爲臣 補陰養血爲佐 俾火息金清降이라고 하였으며 黃<sup>29)</sup>은初期에는消風散火 오래되면 養血補腎하라고 하였다.

總括하면 膽熱者는 清瀉肝膽, 肺氣虛는 溫肺散寒, 風寒은 辛溫宣肺, 風熱이면 消風清熱한다.

西醫學 側面<sup>31)32)33)</sup>으로 볼때 급성부비동염과 만성부비동염에 해당된다.

급성부비동염은 그 원인이 감기에 속발하는 급성비염, 소아의 아데노이드비대와 편도염, 인두염등의 인두감염, 상악대구치나 소구치의 충치발생 또는 발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치아감염, 그리고 해부학적 폐쇄, 감염에 의한 폐쇄, 알러지에 의한 폐쇄, 비강 및 부비동의 종양, 수염, 외상등이 있으며 소인으로는 생활환경과 영양상태, 유전적인 요소등이 있다

원인균은 크게 바이러스, 세균, 진균으로 나누며 바이러스에는 Rhinovirus, Parainfluenza, Echo28, coxsackie A21, 진균으로 Mucormycosis, Candidiasis, Aspergillus 등이 있다. 일반적인 증상은 권태감, 두통, 미열이 있으며 비루, 비색, 부비동주위의 동통과 압통등이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는 항생제 투여와 국소치료등이 있다.

Table1. 鼻淵의 原因

文 獻	病 因
黃帝內經	膽移熱於腦 少陰之復 燠熱內作
諸病源候論	氣虛受風冷
聖濟總錄	風冷傷於肺經
濟生方	肺虛 風寒濕熱之氣加之
小兒衛生總微論方	風冷博於血氣
醫方類聚	鼻濕不已
醫學綱目	濕熱痰積之疾也
丹溪心法	肺經素有火邪 火鬱甚 感風寒而致
東醫寶鑑	外寒束內熱之症也 風熱
普濟方	其氣不利 受風冷之氣
醫學入門	鼻塞久即 氣塞不傳 熱鬱於腦 清濁混亂
醫學心悟	腦中受寒 久而不散 以致清濁常流
類證治裁	由風寒入腦 蔚久化熱
證治彙補	氣壅熱鬱 清濁混亂
景岳全書	由太陽督脈之火
幼幼集成	膽移熱於腦
實用中醫內科學	風熱犯肺...發爲鼻淵 肺經素有鬱熱
中醫兒科證治	肺經濕熱
中醫兒科學	外感風熱風寒 膽移熱於腦 肺氣虛寒
韓方眼耳鼻喉科	肺氣虛寒

Table2. 鼻淵의 症狀

文 獻	症 狀
中醫兒科學	風寒型-全身惡寒發熱,無汗頭痛,鼻塞聲重,流涕色白清稀 風熱型-發熱重惡寒輕,有汗口渴,咳嗽,痰多,鼻塞不利 膽熱型-鼻涕黃濁粘稠,頭痛,煩躁易怒 肺氣虛寒型-病程較長,鼻涕色白量多,或稀或點
五官科學	耳鳴,耳聾,記憶力低下

Table3. 鼻淵의 治法

文 獻	治 法
千金要方	辛溫而導氣滯
丹溪心法	清肺降火爲主 消痰 佐以通氣之劑
醫學入門	養血卽血生而火自降 補腎卽水升而金自清
景岳全書	補陽 清陰火而兼而滋陰
增補百病辨證錄	清腦中之火 益腦中之氣
臨証指南醫案	清熱散鬱 升陽散火 驅風補肺 外感宜辛散 內熱宜清涼
瘍醫大全	滋腎清肺爲君 開鬱順氣爲臣 補陰養血爲佐 俾火息金清降
醫宗損益	初卽消風散火 久則養血補腎
中醫兒科學	宜通肺竅法爲主 : 風寒者(辛溫宣肺) 風熱者(消風清熱) 膽熱者(清瀉肝膽) 肺氣虛寒者(溫肺散寒) 脾虛清陽不升者(補中益氣)

Table2. 鼻淵의 症狀

文 獻	症 狀
黃帝內經	濁涕下不止
中臟經	濁膿 不聞香臭
諸病源候論	津涕不能自收
奇效良方	鼻內壅塞 涕出不已 氣息不通 不聞香臭 取黃水鼻中下 穢臭
醫學綱目	右鼻管流濁涕 有穢氣 吐濁涕
丹溪心法	鼻塞不聞香臭...鼻流濁涕下不止
醫學正傳	鼻塞不通,濁涕,黃水,腦亦時痛
醫學入門	香臭不知,鼻流濁涕,咳吐膿血
萬病回春	不聞香臭,鼻流濁涕,臭膿水
景岳全書	頭腦隱痛,眩暈不寧
瘍醫大全	鼻流濁涕,頭眩
增補百病辨證錄	涕臭者,流清涕而不腥臭
醫宗金鑑	鼻中淋瀝 腥穢血水 頭眩虛暈而痛

만성부비동염은 급성부비동염의 치료가 질 되지 않았거나 급성염증의 반복이환이 그 원인이 되며 소인으로는 비중격만곡증, 비갑개비후, 비강과 비인강종양, 인두편도 비대, 알레르기등이 있으며 증상으로는 이 비인후과적 증상으로 비색, 비루, 후비루, 비출혈, 취각이상, 부비동 동통, 인두건조감, 인후통, 지속적 이루, 유스타키오관의 폐색적 증후등이 있으며 두목증상으로는 두통, 결막염, 안검부종등이 있으며 소화기증상으로는 오심구토, 소화장애, 식욕부진, 가벼운 위염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미열, 간헐적 발열, 우울불안, 집중력저하등이 있다. 치료는 수술등의 적극적 방법이 필요하다.

以上에서 볼때 成人鼻淵과 小兒鼻淵 크게 區分되지 않으나 小兒는 臟腑가 嬌嫩하고 鼻頭蓋口部가 커서 邪를 制御할 能力이 弱하여 쉽게 外邪에 感冒되고 同時에 小兒의 傳染病人 麻疹,白喉,丹砂,百日咳 등의 症狀이 보일 때 合病되는 것이 鼻淵이다.臨床的으로 볼때 小兒科의 感氣疾患으로 來院하는 患者의 大部分은 西洋醫學 側面에서 볼때 氣管支系統의 疾患과 鼻腔內 疾患이 大部分이었으며 특히 자주 感冒에 시달리는 小兒는 折半以上이 鼻腔內 疾患이 完治되지 않은 狀態에서 反復의 感染으로 發生하는 것으로 小兒感冒의 根源的 治療는 鼻炎의 治療가 于先되며 小兒科에서는 成人 못지않게 중요한 治療의 對象이 된다.그러므로 本 疾患이 小兒에게 發病率이 높으며 症狀 또한 重하다.

#### IV. 結論

以上の 文獻으로 調査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하였다

1.鼻淵의 原因으로 東醫學的 側面에서는 肺熱, 肺火, 風熱, 風寒, 肺虛, 肺冷, 腦熱, 腦冷, 濕熱痰積, 膽移熱于腦, 脾胃經濕熱, 腎陰不足, 肝膽火熱等이며 西醫學的 側面에서 볼때 급성비염, 인두감염, 치아감염, 해부학적 폐쇄, 감염, 알러지에 의한 폐쇄, 비강, 부비동의 종양, 수염, 외상등을 원인으로 본다. 특히 소아과의 비연의 원인은 풍한, 풍열의 외감과 비경습열, 담열의 내상이 주원인으로 본다.

2.鼻淵의 症狀으로 東西醫 모두 濁涕下不止(東醫), 鼻漏(西醫)를 주증으로 보았으며 鼻塞(Nasal Obstruction), 不聞香臭(嗅覺異常), 辛頰(喉鼻漏), 鼻痛(副鼻洞 疼痛), 咳嗽, 喉間痰多, 嘔吐 등이 있다고 보았다.

3.鼻淵의 治療에 있어서 東醫에서는 清瀉肝膽, 溫肺散寒, 辛溫宣肺, 消風清熱한다. 西醫學에서도 抗生劑 療法, 鼻凝血除去劑, 血管收縮劑 등을 使用하여 治療한다.

#### 參 考 文 獻

- 1). 張隱庵 : 馬元臺編註, 黃帝內經, 臺北, 臺聯國民出版社, 1977, 268쪽(素問), 483쪽(靈樞)
- 2). 巢元方 : 蘇氏諸病源候論, 臺中, 昭人出版社, 1983, 卷29, 5쪽
- 3). 政和奉勅 : 聖濟總錄, 서울, 翰成社, 1977, 202-204쪽
- 4). 嚴用和 : 濟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36-139쪽
- 5). 陳夢雷 : 小兒衛生總微方論(醫部全錄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9, 卷16, 289쪽
- 6). 世宗大王命選 : 醫方類聚, 서울, 金剛出版社, 1981, 卷4, 2837쪽
- 7). 樓英 : 醫學綱目, 對南, 北一出版社, 1978, 卷27, 35-37쪽
- 8). 朱丹溪 : 丹溪心法, 臺北, 五州出版社, 1981, 卷12, 16-17쪽
- 9).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238쪽
- 10). 朱橚 : 普濟方, 翰成社, 嬰孩編, 208쪽
- 11). 李梴 : 醫學入門, 翰成社, 363쪽
- 12). 程國彭 : 醫學心悟, 友聯出版社, 223쪽
- 13). 朴珮琴 : 類證治裁, 香港, 申光出版社, 1978, 386-389쪽
- 14). 李用粹 : 證治彙補, 臺北, 萬葉出版社, 1976, 245-248쪽
- 15). 張景岳 : 景岳全書, 서울, 杏林書院, 1975, 371-374쪽
- 16). 陳復正 : 幼幼集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188-190쪽



- 17). 黃文東：實用中醫內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193-194쪽
- 18). 周天心：中醫兒科證治，廣東科技出版社，1986，193-194쪽
- 19). 王伯岳：中醫兒科學，圖書出版 鼎談，1994，689쪽
- 20). 華陀：中臟經，醫部全錄5冊中，서울，金永出版社，3860쪽
- 21). 方賢：奇效良方，香港，常務印書館，1977，1235-1252쪽
- 22). 虞搏：醫學正傳，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1，245-247쪽
- 23). 龔廷賢：萬病回春，서울，醫文社，1985，191쪽
- 24). 顧世澄：瘍醫大全，서울，錦章圖書局，1975，권12，9-11쪽
- 25). 陳士澤：增補百病辨證錄，서울，書苑堂，1981，106-108쪽
- 26). 吳謙：醫宗金鑑，서울，大星文化社，1983，권하，185-186쪽
- 27). 孫思邈：千金要方，서울，杏林出版社，1976，270-271쪽
- 28). 葉天士：臨証指南醫案，서울，翰成社，1982，631-633쪽
- 29). 黃度淵：醫宗損益，서울，醫藥社，1976，216-217쪽
- 30). 醫學教育研究院：家庭醫學，서울，서울大出版部，1991，684쪽
- 31). 小兒科學：서울，1993，大韓教科書株式會社，1993
- 32). 小兒科概論：서울，高麗醫學，1993
- 33). 小兒科概要：서울，賢文社，1991
- 34). 朴恩貞：小兒鼻淵에 關한 文獻的 考察，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1989，23-36쪽
- 35). 蔡炳允：韓方眼耳鼻咽喉科學，서울，集文堂，1991，253-255쪽
- 36). 上海中醫學院編：五官科學，香港，商務印刷書館，104-106쪽
- 37). 中醫臨床手冊：香港，商務印刷書館，1975，225쪽
- 38). 北京中醫學院：中醫臨床大系，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42-57쪽
- 39). 陳無擇：三因方，서울，翰成社，1977，11-12쪽
- 40). 王肯堂：六科准繩，臺北，新文豐出版公司，1974，2084-2089
- 41). 李時珍：本草綱目，北京，人民衛生出版社，1977，289쪽
- 42). 祁坤：外科大成，中國，會文堂書局